



# 전북도, 운영제한 시설 지원 첫 발

14일 간 체육시설 등 1만 3064곳 70만원씩 긴급 지원  
재난관리기금 100억원 활용... 코로나 조기 종식 의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한 전북도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거리두기 운영 제한 시설 지원에도 전국 첫발을 내디딘다.

사회적거리두기를 통해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을 지원해 경제적 피해를 덜어주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를 조기 종식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지원에 나선 것이다.

도는 23일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방안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도내 학원과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1만3064곳에 대한 지원책으로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각 70만원씩 모두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에 나서며 도내 모든 운영제한 시설은 신청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은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전라북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격 결정됐다.

앞서 정세균 총리는 지난 21일 담화문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활용 용도 확대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전북도는 행정명령이 완료되면 예산편성 전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지원은 사회적거리두기에 따른 행정명령 뒤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최소한의 지원책이다"며 "전북도는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목표로 지난 13일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대책을 포함한 2,456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등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 2회추경 편성을 통해 경기침체에 따른 도민경제 활성화 지원책도 꾸준히 발굴해 지원하겠다"며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활동 지원에 초점을 두고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1일 발령한 사업장 운영 중지 행정명령 등 사회적거리두기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청 직원을 총동원해 도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사업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김진성 기자

## 방역관리·학습지원 '투트랙'

전북교육청, 신학기 개학준비 지원단 구성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4월 개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학기 개학 준비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개학 준비 지원단은 2개 지원반, 4개팀으로 구성되며, 정병의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국장과 행정국장이 부단장으로 13개과 부서장들이 단원으로 참여한다.

우선 방역관리점검반은 총괄지원팀을 맡아 학교 대응지침 마련·안내, 방역물품 균등 지원 계획 수립, 방역물품 확보 및 적기 공급 체계 구축, 감염예방 생활수칙 준수사항 점검 등을 추진한다.

또한 학생학습지원반은 학습지원팀·긴급돌봄지원팀·학원관리팀으로 나눠 운영된다.

학습지원팀에서는 학습공백 보완 방안 마련,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온라인 학습 콘텐츠 질 관리 및 시스템 보안을 맡는다.

긴급돌봄 지원팀은 돌봄 프로그램 확충과 방역·안전 관리, 사립유치원 지원을 위한 협의 및 방안 마련을, 학원관리팀에서는 영세학원 지원 정책 수립, 학원 방역 현황 점검 및 추진에 나선다.

한편 개학 준비 지원단은 주 2회 정례회의를 갖고, 개학과 관련한 제반 사항 전반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14개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지원과장을 단장으로 신학기 개학 준비 추진단을 구성해, 4월 개학에 대비할 방침이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 행정명령 긴급 브리핑 송하진(가운데) 전북도지사는 23일 전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행정명령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전북도, 피해기업 '맞춤형' 지원

수입선 다변화, 수출판로 개척  
바우처 활용... 참여 기업 모집

전북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원부자재 수입선 다변화 및 수출판로 개척 등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도는 23일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생

산 차질, 수출 및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0년 전북형 위기대응 바우처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4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업체의 바우처 활용계획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 및 수출 마케팅 전반에 대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맞춤형

출형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피해 사실이 있는 도내 제조·무역 중소기업이며, 총사업비 2억원이 투입된다.

바우처 지원범위는 수입선 발굴에 필요한 경비, 신용조사, 무역보험, 해외 마케팅, 바이어 발굴, 외국어 웹사이트 제작, 홍보동영상·광고 제작, 시제품 제작·배송, 컨설팅, 해외규격 인증 등 폭넓은 분야를 지원한다.

도 이남섭 기업지원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피해 회복의 든든한 다짐들이 되길 바란다"며 "계속적으로 수출기업

의 판로 개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수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형 위기대응 바우처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북도수출지원관리시스템(https://jbtrade.jeonbuk.go.kr)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www.jbta.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류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해외시장팀(063-711-2043)에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 전주 시내버스 감차 운행

23~31일 한시적...61번·102번 등 10개 노선 총 92회

코로나19의 여파로 승객이 줄어든 전주시내버스 일부 노선의 운행횟수가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자가 평소의 절반으로 줄어든 데다, 초·중·고교와 대학의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서 시내버스 운수업체가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코로나 19와 개학연기 등으로 인해 시내버스 이용자가 예년보다 약 50% 정도 감소함에 따라 버스 운수업체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내버스 일부노선을 변경해 운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주 시내버스 5개 회사는 평일 하루 408대, 총 3959회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시는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평일에 한해 하루 10대(10개 노선), 총 92회를 감차해 운행하기로 했다. 줄·퇴근 시간대에는 버스가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감차노선은 △61번 △102번 △165번

△752번 △960번 △3-2번 △119번 △309번 △381번 △684번 등 10개 노선이다. 특히 시는 이번 감차노선을 주로 배차간격이 짧은 노선을 선정했다.

시는 또 운행횟수 감소로 인한 시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www.jonju.go.kr)와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안내기(BIT) 등을 통해 운행 일부변경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이달 중 한시적으로 시내버스 감차 운행을 시행한 후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4월부터 운영계획을 다시 세운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승객감소와 학교개학연기로 시내버스 운수업체들의 경영난이 심각하게 지속돼 불가피하게 시내버스 운행 일부노선을 한시적으로 감차하게 됐다"면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olm

NAVER jjctv전북

##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 본사: www.jjctv.co.kr tel: 02-2057-001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23F

JJC 전북총국: jjctvjeonbuk.com tel: 063-246-0885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5F